83

◇재발성 비소세포 폐암의 수술적 치료

김문수, 김영태, 성숙환, 김주현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재발성 비소세포암의 수술적 치료의 장기 성적과 역할에 대해서 아직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본 서울대학교 병원의 과거 10년간의 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의 절제의 성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방법 :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원발성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702명의 환자중에 22명[3.1%]의 환자가 재발성 폐암으로 다시 수술을 받았으며, 이중 1명의 환자에서는 수술후 양성 결절로 밝혀졌으며, 절제가 불가능했던 2명의 환자를 제외한 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재발성 폐암의 절제후의 생존률과 생존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성, 연령, 병리학적 병기, 세포형, 수술의 종류, 원발암 수술후 보조치료의 종류, 재발위치, disease free interval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 : 2차 수술시의 평균연령은 58.6±10.4세였으며, 성별은 남자가 16명, 여자가 3명이었다. 4명의 환자가 1차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2명의 환자가 화학요법을 받았다. 환자들의 병기는 Ia가 3명, Ib가 9명, IIa가 1명 그리고 IIb가 6명이었다. 폐암의 세포형은 편평상피세포암이 13명이었으며, 선암이 5명, 기관세지폐포암종이 1명이었다. 두 환자에서 원발암과 재발암의 세포형이 달랐으며, 10명의 환자에서는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9명의 환자에서는 폐엽절제술 또는 완전폐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전체 환자의 1년 생존율은 79%였고, 5년 생존율은 56%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후인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 재발성 폐암의 경우에 수술적 절제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상환자의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

책임저자:성숙환(서울의대) 발표자:김문수(서울의대)